

콘텐츠융합진흥원 메가어스 ‘판박이’ 논란

전북대 등에 이어 ‘부실’ 논란 제기
5개 기업 지원 도비 2900만원 투입
MOU 3건 뿐...실계약은 전무
타 참여기관도 집행·관리부실 의혹

(6)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현재 남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논란, 특정 업체 독식 의혹 등의 각종 문제점을 10여 차례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를 둘러싼 부실 검증과 저조한 실계약 논란이 앞서 드러난 전북대학교 등에 이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23년 메가어스 엑스포 참가 지원에 도비 총 2,900만 원을 투입했다.

지역거점형콘텐츠기업지원센터 사업 4개 사(각 600만 원)와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사업 1개 사(500만 원) 등 총 5개 기업에 ‘민간사업지원금(민간이전)’ 명목으로 예산을 교부했다.

그러나 예산 투입 대비 현지 참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는 저조했다.

진흥원의 ‘2024년(2023실적) 경영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참여 5개사의 실적은 비즈매칭 24건, 업무협약(MOU) 체결 3건(총 10만 달러)에 그쳤으며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진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보고서 주요실적 란에는 박람회 전체 합산 홍보 수치인 ‘800만 달러 수출계약, 104건 2,800만 달러 양해각서 체결’을 기재한 반면, 바로 옆 자체 추진성과 란에는 ‘MOU 3건(10만 달러)’으로 명시해 전체 성과를 기관 실적처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대표 A씨는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기대하고 참가를 결정했으나 현장에서 확인된 결과는

참담했다”며 “사전 검증이나 실효성 분석 없이 형식적으로 예산만 집행한 채 성과를 부풀리기 바빴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메가어스 엑스포에 참여했던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처럼 감사를 피하기 쉬운 ‘민간이전 참가비 지원’ 방식의 예산 집행과 관리 부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기업 대표 B 씨는 “대다수 기관이 현장 검증이나 실효성 분석 없이 ‘참가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주관사의 운영을 방조하고 감사를 교묘히 피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매수 혐의’ 이남호 前 후보 송치 압수물 속 추가 연루자 ‘촉각’

기사대가 200만원 금품 제공 혐의
전 공보담당자 등 3명 불구속 송치
공소청 보완 수사 여부 주목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보도를 대가로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남호 전 전북교육감 후보가 공소청에 넘겨진 가운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이 전 후보와 선거캠프 전 공보담당자 A씨, 금품을 수수한 기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기사 작성을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이남호 前 후보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이 전 후보는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

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금품이 건넨 뒤 B씨가 실제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방대한 디지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특정 기자 1명의 수수 사실에 그치지 않고, 추가 연루자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겨울철 도로 결빙 대비 취약구간 점검

이지성 부지사, 고창 경계 현장방문
국지도 15·49호선 제설 취약지 점검
제설차량 운영 시연·협력체계 확인
솔제터널 진출입부 안전관리 강화

전북도는 이지성 행정부지사가 23일 고창과 전남 장성을 잇는 도 경계지역의 제설·결빙 취약구간을 찾아 겨울철 대설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습 강설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 고창군이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 위원장도 함께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15호선 산간 고갯길 교차로와 국지도 49호선 솔제터널 진출입부로 강설시 제설작업과 도로결빙에 취약한 구간이며, 도계 경계지역으로 제설작업이 지연될 교통체증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다

현장에서는 겨울철 강설 상황을 가정해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차량과 교통통제차량 운영을 시연하고, 제설작업시 고창군과의 협력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창과 전남 장성을 연결하는 솔제터널은 연장 380m로, 일조량 부족과 기온



결빙 대비 전북-전남 경계도로 취약구간 점검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3일 고창과 전남 장성 경계지역의 제설·결빙 취약구간을 찾아 겨울철 대설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차에 따른 터널 진출입부 결빙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터널 주변 관리상태와 모래주머니 등 제설자재 배치 상황을 살폈다.

이에 대해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행

정부지사는 “겨울철 대설과 도로 결빙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한발 앞선 제설 대응체계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취약구간을 빈틈없이 관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조배숙 “사랑의열매 사무총장도 성남라인”

면접 1·2위 탈락 뒤 재공모 진행
조 의원 “인선 과정 명확히 밝혀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지낸 ‘경기도·성남 라인’ 인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차 공모 중 면접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인사를 ‘경험이 부족하다’며 탈락시킨 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를 최종 선임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총장 최종 후보자 추천 집계결과’에 따르면, 1차 공모의 2차 면접 심사 과정에서 김성원 전 삼성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총점 56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권석필 전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558점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모금회 이사회는 두 후보자를 각각 모금 전문성과 조직 경영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시켰다. 이후 사무총장 재공모를 의결하고, 지난 7월 2차 공모를 진행해 10월 진석범 선임 사무총장을 최종 선임했다.

모금회가 지난 1일 선임한 진석범 선임



조배숙 의원

사무총장은 2023년 8월~2024년 1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친명계 인사다.

진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이던 2018~2021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결국 1차 공모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권석필 전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최종후보자에 포함된 데 이어, 재공모를 통해서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 출신 인사가 사무총장에 선임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라인’ 낙하산 인사 연이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 의원은 “1차 공모에서 면접 1·2위 후보자를 모두 부결한 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선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결 사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미양행, 남원산단에 191억 투자 생산공장 건립

1만평 규모 화장품·건강기능식품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첫 투자협약

내년 3월 착공...동남아수요 대응

액상파우치 생산라인 남원에 구축

전북도는 남원시청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한미양행과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미양행(대표 정명수)이 2년여 동안 남원노암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내 화장품 제조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온 경험이 밑거름됐다.

투자협약을 통해 ㈜한미양행은 총 191억 원을 들여 1만 평 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미양행은 화장품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수출 물량 등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공장 추가 건립을 결정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액상 파우치 생산라인도 남원에 새로 구축해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남원일반산업단지가 지난 2025년 7월 산업통상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처음 성사된 투자협약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우수한 투자 여건이 경쟁력 있는 강소 바이오기업을 남원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남원시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한미양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



<사진=남원시>

업이 남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인 남원시에 한

미양행이 한미화장품 설립에 이어 기업 내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감사를 드린다”며 “60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남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내달 6일까지 3개 분야 신청 접수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놀이차량 활용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주말·틈새 돌봄 지원 확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추진하는 ‘2027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가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 및 도서지역에서 전년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회복합시설 등이 신청 대상이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해 놀이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꿈자락 놀이터와 가족 행복 성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돌봄을 지원한다.

농번기 돌봄지원원은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지역농협, 여성농업인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농번기 주말 돌봄과 새벽·저녁 시간대 틈새돌봄을 통해 장시간 농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전북도는 올해 농촌아이돌봄 13개소, 찾아가는 돌봄교실 4개소, 농번기 돌봄 30개소를 운영하며 농촌지역의 보육 공백 해소를 지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 참여를 안내하고 공모 신청을 지원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촌 돌봄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조희대 탄핵 찬반 ‘팽팽’...李대통령 부정평가 50%

반대 39% 찬성 34%...유보 28%
대통령 긍정평가 40%·부정 50%
36% “추가 더 떨어질 것”

한국갤럽 조사에서 최근 민주당과 범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30% 후반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왔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22일 서울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물은 결과 39%가 ‘반대’, 34%가 ‘찬성’,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 성향 진보층(66%), 40~50대

(47%) 등에서, 반대는 국민의힘 지지층(71%), 보수층(61%), 60대 이상(51%) 등에서 많은 편이다. 중도층은 탄핵 찬반 각각 34% 동률을 이뤘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 20대 등은 절반가량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40%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추석 이전 지속되던 대통령 직무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멈췄다. 직무 부정률은 여전히 50%대지만,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37%)를 벗어나 7주 만에

40% 선에 닿았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6%)·성향 진보층(67%)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9%)·보수층(76%)에 많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1%·54%)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향 중도층(긍정 40%·부정 47%), 여성(43%·43%)은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36%·57%) 중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00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8%), ‘경제/민생’(16%), ‘국방/안보/대북’(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도덕성 문제/보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인사(人事)’(이상 4%), ‘외교’, ‘통합·협치 부

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의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현 정부 출범 후 양대 정당 격차 10%포인트 이내 기록은 지난 9월 첫째·둘째 주(→ 제674호, 제675호), 그리고 10월 둘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다섯 번째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0%,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염영선 “道 산하기관 분산배치로 균형발전 실현해야”

“수도권 비판하며 도내 불균형 외면”
도내 재배치 통합 추진체계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 23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는 소극적인 전북도정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작 도내 인구와 경제 활동, 주요 행정기능은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며, “국가에는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도내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관별 임지와 기능, 인력 및 지역별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이전 적합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TF 운영과 최근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 전담 기능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

가 공공기관 유치와 도내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상설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염영선 의원은 “과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원택 도지사가 정작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과 도 산하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소극적이라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도정의 실천 의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도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이전 적합성 평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 수립 ▲균형발전 전담조직 강화 및 상설 추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끝으로 염영선 의원은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만 요구할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실현해야 할 책무이다”라며, “이원택 도정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조직과 예산으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환절기 감기 조심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예방 하세요!!

수분섭취

손씻기

가벼운 운동

체온관리

충분한 수면

실내환기

담배, 과음 줄이기

전주시, 산단 중견기업과 성장 해법 찾는다!

산단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경영 동향·현장 애로 청취

전주시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단지 중견기업들과 만나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팔복동 산업단지 주요 기업 대표·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주요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경제정책 동향에 맞춰 기업 경영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가온전선㈜ △모나리자 △비나텍㈜ △삼양사 △세플리코

리아 △㈜창해에탄을 △HS효성첨단소재㈜ △㈜휴비스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단지 주요사업 및 기업지원 정보 공유 △기업별 최근 동향 공유 △시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를 통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지원과 제1·2산업단지 재생사업,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 민선 9기 기업정책을 소개했다. 또 2027년 정부 예산안과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정보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참석기업들은 수출 확대와 신기술 개발 등 최근 성과를 공유했다. 참여 기업 중 가온전선㈜은 미국 빅테크기업과 버스트덕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분기 최대 실적을 냈으며, 모나리자는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

또, 비나텍은 올해 데이터센터용 슈퍼커패시터 약 2,290억 원 어치를 수주했으며, 삼양사는 자동차 내장재용 실리콘 PC 누적 판매 1만 톤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세플리코리아 전주공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용 3열 배어링을 생산하고 있으며, 창해에탄올은 코스닥 우량기업부에 지정됐고, HS효성첨단소재는 초고강도 탄소 섬유로 미국 우주항공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비스도 폴리에스터섬유를 중점 생산하면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참석 기업들은 생산·매출·고용 등 최근 경영 상황과 설비투자·연구개발 등 향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변 환경 정비와 교통안전 대책, 설비 개선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시는 이날 나온 기업별 주요 현안을 관계부서와 공유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기업과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업지원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산업단지 중견기업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해결하고, 탄소국가산단과 피지컬 AI 등 새로운 산업 기회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조지훈 시장, 전국 최장수 기령당경로당 방문

어르신 건강·안녕 기원 “행복한 어르신 도시 만들겠다”

조지훈 전주시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을 찾아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조지훈 시장은 지난 23일 기령당경로당을 방문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노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에게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행보로, 올해로 429주년을 맞는 전국 최장수 경로당인 기령당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조선시대 전라관찰사와 전주부윤은 부임하면 가장 먼저 기령당을 찾아 고을 어른들께 문안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지난 2023년 3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령당은 명실상부 전주 지



조지훈 시장은 지난 23일 기령당경로당을 방문해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노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주시>

역 노인복지의 상징으로, 현재 40여 명의 노인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경로당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전주시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내 경로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철 기령당 회장은 “시장님이 직접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기령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세대를 잇는 지혜의 보고이자 전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이 전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로와썸’ 설렘 가득한 하루 선물

연애코칭 특강과 1:1 대화 자연스러운 만남·관계 형성

전주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는 지난 24일 달콤박스 시청점에서 전주청년 지역정착 프로젝트 ‘전주로와썸’의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과 직장 생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소통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들이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의 기회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전주 청년들의 건강한 만남을 위해 신뢰도 높은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첫 시도로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 거주 또는 전주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직장인 청년 만28세에서 36세의 청년들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110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기록했으며,

/정소민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서 특별한 스몰웨딩

‘웨딩 in 전주’ 올해 다섯 번째 예식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이 신혼부부의 특별한 예식 공간으로 제공됐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가족과 친지 등 하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색 있는 공간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선보이는 ‘웨딩 in 전주’의 올해 다섯 번째 예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

‘웨딩 in 전주’는 전주의 공공시설과 문화공간을 예식 장소로 활용해 예비부부가 자신만의 취향과 이야기를 담은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장소 대관과 예식비용 일부 지원, 협력업체 연계 등을 통해 예식 준비를 돕고 있다.

이날 신랑과 신부는 전통문화공간의 정취 속에서 가까운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협력업체인 마리히웨딩이 예비부부와 함께 예식을 준비하고 진행했

며, 예식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에는 인근 식당에서 피로연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올해 ‘웨딩 in 전주’는 전라감영과 시청 앞 노송광장, 덕진공원에서 각 공간의 매력을 담은 예식으로 거행됐으며, 이번에는 새로운 공간인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무대를 옮겨 도심 속 문화공간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장소가 됐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웨딩 in 전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인지도와 이용 의향, 선호 장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운영과 홍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숙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 은 “결혼식이 열리는 공간부터 예식 방식까지 두 사람의 취향과 선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웨딩 in 전주’의 매력”이라며 “전주의 다양한 공간에서 예비부부가 뜻깊은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건지산숲속도서관, 최원형 작가 초청 강연

어린이 환경 교실 마련

전주시 건지산숲속도서관은 오는 30일 최원형 작가를 초청해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환경 주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숲 특화 도서관인 건지산숲속도서관의 정체성을 살려 환경 에세이와 어린이 생태 도서 저술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는 최원형 작가를 초청해 진행된다.

최원형 작가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착한 소비는 없다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발

한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저서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심코 먹고 쓰는 일상 속 소비가 숲과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버드피터 만들기’ 체험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직접 새 모이통을 만들어 보며 도심 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기회도 갖게 된다.

/정혜민 기자

한국대사관 돌담길 문화축제 참가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전주 야간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시는 지난 24일과 25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6 한국대사관 돌담길 문화축제’에 참가해 전주 야간관광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베트남 양국의 정부 기관과 여행사 등 100여 개 유관기관과

개별여행객 등 3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K-문화 축제로 꾸며졌다.

시는 이번 문화축제에서 한국관 내 전주 야간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전주만의 특색있는 1박 이상의 체류형 야간관광 여행상품을 소개했다.

특히 한복과 한지, 한식 등 우수한 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렸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전주 관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홍보 및 쿼츠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전주를 기념할

수 있는 홍보 물품도 배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개별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 홍보 및 인접 시·군과 연계한 상품 홍보·상담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의 관광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행사 사전 설명회에도 참가해 신규 방문 상품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한국관광공사(KTO)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베트남은 단체 관광뿐만 아니라 개별관광 잠재수요가 높은 시장으로, 현지 문화축제 행사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및 여행 상품을 홍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여행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신규 방문 상품 개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개별관광객 대상 홍보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전개해 잠재수요층이 실질적인 전주 관광으로 이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 청소년, 지역에서 꿈과 진로 설계

가업승계진로탐색 일일캠프 개최 가업승계 의미·가치 탐색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와 BP경영연구소는 지난 24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지역 중·고등학생과 가업승계 청년 기업인,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탐색 가업승계 일일캠프’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가업승계 기업 발굴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가업승계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 내 가업승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와 창업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가업승계를 경험한 청년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 경영 경험을 공

유하며,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 유열댄스팀의 공연 △가업승계 기업인 인터뷰 영상 시청 △가업승계 경영인 소개 및 질의응답 △전통 노래가 만들기 체험 △나의 가업 로드맵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기업인의 경험을 듣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며 가업

승계와 자신의 진로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역 내 우수 기업과 가업승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꿈을 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인봉초 ‘2026 함께 가요 학교+마을 축제’ 개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우러져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인봉초등학교, 아중교육공동체협의회, 인봉늘봄학회는 지난 24일 전주인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26 함께가요 학교+마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마을교육공동체 ‘별별마당’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와 마을의 연결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소통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026 함께가요 학교+마을 축제’는 학교와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이 뜻을 모아 그동안 학교와 마을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력하며 쌓아 온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과후 활동과 버스킹 공연 등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무대가 펼쳐졌으며, 특히 인근 온고중학교 밴드부가 축하 공연을 선보여 축

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시는 이번 축제가 학교와 마을이 각자의 공간과 역할의 한계를 넘어 서로 연결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교육기관·마을공동체, 그리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교육 협력의 우수한 실천 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기 기자

전북은행, 핀다와 대원저축은행 공동인수

지분 40% 취득… 추가 증자 부담 부실 위험 관리 관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핀테크 기업 핀다와 함께 경북 소재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면서 투자 수익성과 추가 자본 투입 가능성, 지역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 여부가 주요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금융혁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과 투자 위험 관리 대책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지난 21일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핀다와 대원저축은행을 공동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수 지분은 핀다가 60%로 최대주주가 되고 전북은행이 40%를 보유하는 구조다.

총인수금액은 120억 원으로 알려졌다며 전북은행의 투자금은 48억 원이다.

문제는 투자금 48억 원이 최종 부담액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저축은행의 영업 확대와 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 증자가 추진될 경우 전북은행의 자금 투입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추가 출자 여부와 투자 한도, 예상 수익률 등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영 주도권 문제도 주목된다.

핀다가 최대주주인 만큼 전북은행이 여신심사와 위험관리, 내부통제를 지원하더라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에 따른 책임과 경영 통제 권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다.

인수 대상인 대원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과 기업가치 평가도 검증 대상이다.

인수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자산·부채 현황과 자기자본, 잠재 부실채권, 향후 자본 확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관련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AI 기반 금융혁신의 실효성 역시 불확실하다. 핀다의 데이터·AI 기술과 전북은행의 금융 운영 경험을 결합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수익 창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AI 여신심사 확대에 따른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부실대출 방지

대책도 과제로 남는다.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짚어볼 대목이다.

대원저축은행은 경북 경주에 본점을 두고 있어 이번 투자가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에 어떤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지는 불분명하다.

전북은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축적한 AI 기술과 운영 경험을 기존 은행 업무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혁신이라는 명분이 투자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북은행이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추가 자본 부담, 경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금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최준호 기자

익산시, 청년창업 해법 찾는다

현장 중심 소통 행보 나서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패기가 익산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익산시가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3일 익산청년시장에서 지역 청년창업가 25명과 함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전선에 뛰어난 청년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직접 듣고, 결합기식 지원이 아닌 손에 잡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모색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런 간담회는 창업 전선에 뛰어난 청년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직접 듣고, 결합기식 지원이 아닌 손에 잡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모색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런 간담회는 창업 전선에 뛰어난 청년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직접 듣고, 결합기식 지원이 아닌 손에 잡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모색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런 간담회는 창업 전선에 뛰어난 청년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직접 듣고, 결합기식 지원이 아닌 손에 잡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모색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시제품의 효과적인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 전문가 경영 자문과 멘토링 기회 확대, 지역 청년 인재 채용 연계망 구축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기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사업 방향 설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박람회 참가 지원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채용 플랫폼 마련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날 수렴된 생생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내년도 청년창업 지원 시책과 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유은미 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아름답은 익산 대전환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며 “들려주신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오롯이 녹여내 청년 기업들이 익산에서 날개를 펴고 더 큰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스쿨팜’ 농심천심 벼 수확 체험

초등학생 대상 벼 수확 낱알 탈곡 체험 선사

도심 속 전통 쌀문화와 체험으로 농심(農心)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전북농협 스쿨팜 벼 수확 체험을 통해 주어진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23일 전주효자초등학교(학교장 고미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키운 벼를 수확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모내기를 통해 직접 재배한 벼를 낫을 이용해 베고 직접 호룻기, 홀태를 사용한 탈곡 체험, 절구질과 키질 등 전통 도정 체험, 빗짚을 이용한 새끼줄 꼬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쌀의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농협은 쌀과자 제조기를 활용해 만들어진 즉석 쌀과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어 쌀의 다양한 활용성과 인식 개선 및 쌀 소비 촉진, 농업·농촌 가치 홍보에도 힘썼다.

이번 행사는 ‘농부의 마음은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가치를 확산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쌀의 소중함과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먹는 쌀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농부님들의 수고를 알게 됐고, 앞으로 밥을 남기지 않고 소중히 먹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사진=전북농협>

호룻기와 홀태, 절구 등을 보고 신기해 하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벼 수확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다”며 “우리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땅 흘리며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키운 농작물에 대한 노고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농심천심 운동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돼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기원>

전북농기원, 천적 증식 거점 농가 지원

운영 점검 및 기술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종철)은 지난 22일 익산시 왕궁면 (유)로즈벨리(대표 정병두)를 방문해 기술원이 지원한 천적 대량 증식 거점농가 구축 상황과 기술 확산 현황을 점검하고, 친환경 유공자(천적농업연구회원)에게 도지사 표창도 시상하는 등 농업인을 격려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농업기술원은 2025년부터 연구회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천적(이리응애류) 증식 거점농가 육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자체 천적을 분양하는 데서 나아가 희망하는 농가에 기술과 재료, 증식실 사양 및 관리방법을 함께 전수해 직접 천적을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상반기까지 육성된 거점농가 1호(완주)는 총채가시응애·지중해이리응애를, 거점농가 2호(익산)는 오이이리응애·

사막이리응애 증식하고분양한다. 이렇게 농업기술원과 거점농가의 단단한 협업을 통해 2026년 현재 천적 2,027만마리를 60여 농가에 무상 보급해 친환경 농가의 해충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사가 진행된 거점농가 3호(로즈벨리)는 9월에 스마트 천적 증식실(33㎡)을 구축해 뿌리이리응애를 연 최대 2억 마리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장에 나선 농업기술원장은 천적 투입 실습에 참여하고, “천적증식 거점농가에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증식 기술을 농가에 전수해 실제 생산과 활용으로 연결한 현장 중심 연구의 우수 사례”라며 “더불어 안정적인 천적 생산 지원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 ‘형평성 논란’

대책위 “30명 이상 파산” 주장… 제도 개선 촉구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믿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정책자금 상환 부담으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출 시기에 따라 상환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에도 경영회생자금마저 담보 부족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전국 청년창업농(2018~2023) 귀농창업자금 상환 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1년간 자체 파악한

청년농업인 파산 사례가 30명을 넘고, 경영회생자금 신청을 거절당한 사례도 100명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는 대책위 자체 집계로 정부의 공식 통계와 대조 확인되지는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정책자금 상환조건인 형평성이다.

2018~2019년 선정된 청년창업농 일부는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적용받았지만, 2023년 제도 개선으로 5년 거치 20년 상환이 가능해지면서도 기존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반면 2020~2022년 선정자들에게는 개선된 조건이 소급 적용돼 같은 청년창업농임에도 선정 시기에 따라 상환 부담에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경영회생자금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농지와 영농시설을 마련하면서 이미 담보를 제공한 청년농업인들이 추가 대출을 위한 담보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도 관련 사례가 제기됐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김제에서 청년창업농 1기 참여자의 부고를 접한 뒤 같은 해 8월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망과 정책자금 상환 부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8~2019년 선정 청년창업농 290명의 대출 상환을 1년 유예하기 위한 아차보전 예산 1억4,100만 원을 의결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자금별 목적과 대출조건이 달라 과거 대출에 개선

된 조건을 일괄 소급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회생자금 연계와 상환 지원 등 보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상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2018~2023년 청년창업농의 귀농창업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 등에 5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빚을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이 실제 영농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농업소득 형성 기간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호 기자

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 본격화

금융위 출자 승인 완료 연내 부실채권 매입 착수

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별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부실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신협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부실채권 정리 규모와 경영 정상화 효과가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는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4월21일 공포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설립·운영계획 수립과 관련 규정 정비 등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해 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신협은 이달 중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하고, 인력 채용과 업무 체계 구축을 거쳐 연내 부실채권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설 자산관리회사는 개별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초기에는 부실채권 매입과 매각에 집중하고, 이후 채무 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 조합의 부실자산 관리 부담을 줄이고, 부실채권 정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조합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실질적인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실채권 매입가격 산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효율적인 채권 회수 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실채권을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더라도 손실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부실자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투명한 관리 체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초기 출자금과 부실채권 매입 목표액, 조합별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실제 매입 실적과 조합별 건전성 개선 정도가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출자 승인은 신협의 부실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을 무·배추의 본격적인 결구기(잎이 겹쳐지며 속이 차오르는 시기)를 맞아 고품질 확보와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생육 후기 현장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을 배추와 무는 속이 차오르는 시기에 물 요구량이 가장 많으므로 포장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생육이 다소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액(물 20L당 40g)을 잎에 뿌려가며 세력 회복을 도와야 고품질의 무·배추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환절기 기온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갑작스러운 저온 피해 대비도 필요하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준비된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온 하강에 대비해 피복 재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올바른 수확 시기와 저장 관리 역시 농가 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가을 배추는 정식 후 60~70일경 속이 단단하고 선단부 잎이 가지런해졌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저장용 배추는 비교적 단단할 때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확한 무·배추를 저장할 때는 온도 0~3℃, 습도 90~95% 수준을 유지해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을 무·배추는 수확 직전까지의 수분·영양 관리와 기습 저온 대응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결정짓는다”며 “특히 앞으로의 기상에 대비한 철저한 방제를 통해서 안전하게 농작물 생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대, 故 이종근 하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625고성지구 전투 공로... 손자이건 학군 사관 후보생이 대신 받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3일 오전 학생타운 민주강당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故 이종근 하사의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을 열고 고인의 공훈을 기렸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고인의 손자인 이건 전북대 도시공학과 3학년(학군사관 66기) 후보생에게 훈장증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故 이종근 하사는 6·25전쟁 당시 제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1952년

강원도 고성지구 351고지 전투 등에서 공을 세웠다.

고인은 1954년 9월 무공훈장 수훈자로 선정됐으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전달받지 못했다.

이후 육군본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 찾기' 사업을 통해 유가족이 확인되면서, 수훈 선정 72년 만에 훈장이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학군단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 후보생 등 40여 명이 참석해 참전 영웅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장교의 길을 걷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훈장을 직접 이어받아 호국정신의 의미를 더했다.

양오봉 총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사진=전북대학교>

평화는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있다”며 “할아버지의 명예를 이어받은 이건 후보생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전북대도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진안 전민재, 아시안 패러게임 은메달 획득

육상 종목 출전

진안군의 전민재 선수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진행되는 '제5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 육상 국가대표로 참가해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대한민국 장애인 육상의 저력을 보여줬다.

전민재 선수는 '제5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 여자 육상 100m, 200m 종목에 출전해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장애인 육상을 대표하는 전민재 선수는 전북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0m 은메달을 비롯해 2023년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전민재 선수

100m, 200m 은메달,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0m, 200m, 400m 금메달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한 여자 장애인 육상 종목의 전설적인 선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국제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민재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과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민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글로벌 경쟁력 입증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은상

군산시는 '2026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베스트 행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반응형 웹사이트'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축제협회(IFEFA)가 주최·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는 전 세계 축제를 대상으로 창의성, 전문성, 운영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이벤트·축제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은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경쟁력과 독창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대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 및 관광지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참여형 축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모아모아시간' 프로그램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수상이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가치를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사진=군산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15만 5천여 명이 방문해 9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외지 방문객 비율이 57%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대, 대사협 '동계 자체개발 해외봉사'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가 주관하는 '2026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주대 사회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해외봉사단은 동계 방학 기간 캄보디아를 찾아 현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친다.

봉사단은 꼬마비전센터와 연계한 무지개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공과 특기를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해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심정하 선교봉사처장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나눔을 실천하고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실 있는 교육봉사를 통해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 고비살살’ 29일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지난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9개 시군에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전북 고비살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정읍, 진안 등 도내 9개 시군의 문화시설과 복지공간, 야외무대 등에서 총 18회 진행된다.

지난 7일에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동백꽃 디퓨저 만들기 △진안군청 야외무대에서 'MADE IN 진안-가을편' 버스킹 공연과 체험 등을 진행했다.

14일에는 부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비살살 부안'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1일에는 △순창 강천산 병풍폭포에서 '가을 음악회'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세게지질공원 테라리움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22일에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코

미디 매직쇼 '못난이 삼형제'를 공연했다.

오는 28일에는 △진안문화의전에서 'MADE IN 진안-축제편' 공연과 체험, △무주 설천면사무소에서 '보고 만드는 모두의 문화요일' 영화 상영과 체험을 마련한다.

29일에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전북 고비살살 정읍'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하는 공연과 공예체험, △부안 백산초등학교에서 '고비살살 부안' 공연과 체험으로 10월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도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풍성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립합창단, 11월 5일 ‘카르미나 부라나’ 공연

인간의 희로애락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노래한 20세기 합창음악의 최고 걸작이 익산의 가을밤을 웅장하게 울린다.

익산시립합창단은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 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91회 정기연주회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4월 익산시립합창단의 새 지휘봉을 잡은 박현호 예술감독의 취임 기념 무대다. 박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호흡을 맞춰 선보이는 첫 정기연주회로, 합창단의 도약과 새로운

예술적 출발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자리다.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의 대표작인 '카르мина 부라나'는 중세 수도원의 시와 노래를 바탕으로 사랑과 욕망, 운명의 굴레를 강렬한 박자와 코러스로 엮어낸 대서사시다.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합창곡 '오, 운명의 여신여(O Fortuna)'는 광고와 영화 음악으로 널리 알려져 클래식 애호가가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익숙한 명곡이다.

이번 무대는 초대형 연합 편성이 빛어

내는 풍성한 음향이 압도적이다. 박 예술감독의 섬세한 지휘 아래 익산시립합창단을 중심으로 전주시립합창단, 나주시립어린이합창단, 라퓨즈오케스트라가 한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강동명, 바리톤 김동섭 등 정성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가세해 객석을 전율케 할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안내는 예술의전당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박현호 예술감독의 열정과 시립합창단의 탄탄한 기량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감동을 선물할 것”이라며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하모니 속에서 순수 예술의 깊은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

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

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

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

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정읍 고부 이골던 전직 면장들 특별법 개정에 한목소리

정읍시가 추진하는 고부농민복지 알리기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에 전직 고부면장들이 한뜻으로 동참했다.

전직 고부면장들은 지난 22일 고부에 모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정읍 고부농민봉기’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누리 소통망(SNS) 홍보에 힘을 보탰다.

이번 참여는 지난 7일 이학수 정읍시장 이 첫 참여자로 나서 이복형 시의회 의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하며 시작한 홍보활동의 하나다. 동학농민혁명에는 1894년 1월 정읍 고부에서 조병갑의 가족한 수탈과 봉건적 모순에 맞서 일어난 농민봉기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은 참여자의 범위를 1894년 3월 제1차 봉기와 9월 제2차 봉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혁명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참여한 전직 고부면장들은 “고부에서 공직에 몸담았던 원로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들이 정당하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꼬마 농부의 하루’ 성료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3일 군산시 장미동 군산로컬푸드직매장 인근 행사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와 인솔 교사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군산 로컬 꼬마 농부의 하루’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2026년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이 군산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오감 만족형 체험·교육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로컬푸드와 한층 더 친밀해지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은 친환경 농산물 예코백 만들기, 꼬마 농부 로컬푸드 장보기, 떡메치기·홀데·우렁이 체험 및 바구니 수확 게임 등 다채로운 부스로 꾸며져 참여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체험행사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도시공단, 조직 내 독서문화 확산…‘독서경영 우수직장’ 획득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은 조직 내 독서문화 확산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독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단은 조직 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27일 독서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서릴레이를 6개 그룹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추진해 왔다.

공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독서경영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독서릴레이 운영을 내실화하고 독서동아리 등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자발적인 독서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공공하수처리 ‘새판 짬다’

민간 위탁 만료 대비 운영비 절감 및 부지 활용 수익모델 발굴

20년간 이어져 온 익산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종료로 앞두고, 익산시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 청사진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익산시는 지난 23일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체계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시설별 운영 효율화 방안과 합리적인 관리 방식, 유휴 부지 활용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08년 6월 시작된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20년 관리운영 기간이 오는 2028년 6월 만료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추진됐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23곳과 중계펌프장, 공공폐수처리시설 2곳의 관리대행 기간 역시 같은 시기 끝나 운영체계 전반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면밀한 공공적·경제적 검토를 의뢰해 시 재정과 운영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관리이행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전면 재건설(현대화)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의 성능과 내구연한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전면 교체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무리한 조기 현대화 대신 기존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무게를 두면서, 하수처리시설 유휴 부지를 활용한 수익사업 모델을 발굴해 운영비와 시민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내는 실속형 대안에 집중한다.

다만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도래

할 시설 노후화와 환경 기준 강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객관적 기반은 확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유량과 수질 등 시설 운영 데이터를 정밀하게 축적·관리해 향후 시설 개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을 때 정부 당당성 확보와 국비 지원을 신속히 이끌어낼 계획이다.

장기간 환경기초시설 인근에서 악취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 온 동산동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도 장기 과제로 함께 살핀다.

임택택 익산시 하수도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처리 기능 유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무리한 대규모 재정 투입 대신 운영 효율화와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차분히 병행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 확대 2(題)

‘귀농인의 집’ 추가 조성

정읍시가 영원면에 ‘귀농인의 집’을 추가 조성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농촌 정착 준비를 돕는다.

시는 지난 21일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영원면의 노후 건물을 새 단장(리모델링)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시 주거공간이다.

영농기반과 주거지를 마련하는 동안 주거 부담을 줄이고, 실제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시가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은 이번에 조성한 영원면 시설을 포함해 총 13개소다. 현재 11명의 예비 귀농인이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며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임시 거주 공간을 통해 귀농 희망자들이 농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의 집이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창업 지원 교육 마무리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과 취·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한 현장 중심 교육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예비 귀농·귀촌인과 정읍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등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귀농귀촌인 취·창업 지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첫날인 20일에는 전문 상담(컨설팅) 강의와 농촌 일자리 안내 등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농촌 정착과 일자리 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며 취·창업을 준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1일과 22일에는 선도 농업인들로부터 영농 방법(노하우)과 실무 지식을 배우는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론과 실습을 연계한 이번 과정은 참가자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귀농·귀촌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농촌 정착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이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실질적인 일자리 진입에 든든한 디딤돌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순항’

출연금 두배 증액

군산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신는다.

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 출연금 변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병원 건립에 투입되는 시 출연금을 기존 204억 원에서 404억 원으로 2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시는 증액된 출연금을 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걸쳐 나누어 출연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심의를 앞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13일과 22일 각각 건립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살폈으며, 이 자리에서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사업 추진 경과와 출연금 변경이 필요한 사유, 향후 운영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위원들은 사업 규모와 5개 센터, 진료과목 구성을 질의하는 한편,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시민수혜방안, 지역업체 활용방안 등을 각별히 주문했다.

시는 이번 동의안 가결에 따라 전북대학교병원과 협의해 출연협약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심도 있는 심의와 현장 확인으로 뜻을 모아 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시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대장정 돌입

11월 1일까지 관광객 맞이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인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지난 23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 축제는 ‘글로우 익산(GLOW IKSAN), 보석처럼 새롭게 빛나는 익산’을 주제로 열린다. 주 행사장인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해 도심 속 휴식 명소인 흥궁원, 익산의 관문인 익산역 일원까지 무대를 넓혀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장의 배미는 익산의 상징인 ‘보석’과 가을 국화의 환상적인 만남이다. 중앙체육공원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화려한 색채를 품은 테마 정원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특히 올해 축제장에는 남녀노소의 오감을 사로잡을 ‘고구마 테마존’이 처음

으로 문을 열어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익산 명품 농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낚시 놀이와 콘솔 게임 등 온 가족 체험 공간이 들어섰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문화 공연도 풍성하다. 젊은 열기를 더할 EDM 댄스파티와 추억의 동춘서커스가 연일 이어지며, 오는 31일에는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놓을 ‘이리오락 페스타’ 토코콘서트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대미를 장식한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천만송이 국화와 반짝이는 보석, 달콤한 고구마가 어우러진 오감 만족 축제를 정성껏 준비했다”라며 “꽃향기 가득한 익산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찬란한 가을의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장쑤성 장인시에서 제9회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군산시 중국사무소가 주최·주관한 이번 교류회에는 박홍순 기획행정국장을 비롯한 장인시 등 중국 11개 자매·우호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교류와 화합의 뜻을 모았다.

‘서로 알고 이해하며, 함께 만드는 우호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각 도시의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교류회 경과보고, 도시별 주제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제발표에서는 군산시와 장인시, 웨이하이시, 동잉시, 쿤산시가 나서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제교류 사례와 지역별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 확대 방안을



<사진=군산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홍순 군산시 기획행정국장은 “이번 교류회는 군산시와 중국 자매·우호도시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문화·관광·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

정읍시가 지난 23일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2026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21곳의 차량 안전과 운행관리 실태를 살폈다.

이번 점검에는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46곳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6곳을 제외한 40곳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상반기에 19곳의 점검을 마쳤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나머지 21곳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 안전띠 규격 준수와 하차확인장치 설치 등 차량 안전요건을 살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결미한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일하는 의회’ 구현

시민 소통·전문성 제고 조직개편 단행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26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장단 보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무국 전체의 전문성을 강화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튼튼히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통보좌계’가 신설된다. 그동안 민원 피드백 체계가 다소 미흡했던 실정을 보완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장단 보좌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 열린 의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홍보자료계는 ‘의정홍보계’로 개편돼 기존의 방식에서 다변화된 SNS를 통한 소통 등 대시민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의정자료와 의사는 교유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해 사

무국 전체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서 정원을 증원한 바 있으며 승진인사, 보좌부여, 일반임기제 채용을 통해 각 계에 인력을 배치해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충영 의장은 “시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더욱 신뢰받는 실천 중심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모집

11월 9~20일까지 접수 금리 우대 등 혜택

군산시가 지역 내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로, 총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군산시에서 운영 중이고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2026년 신규채용 인원이 5명 이상인 곳이다.

단, 최근 3년간(2023~2025년) 동일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거나, 최근 2년간(2024년 11월 이후) 국제·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 등 관련 행정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근로자 수 증가율과 군산시민 채용률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군산시장 표창과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 이자보전금리 1%포인트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지역 자원에 새 가치 입힌다 2(題)

완주군, 도민 대상 피지컬AI실증단지 명칭 공모 남원 농특산물 판로 확대 ‘남원사랑몰’ 입점 모집

완주군이 미래 신성장동력인 피지컬AI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실증단지의 얼굴이 될 이름을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짓는다. 군은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 ‘완주군 피지컬AI 실증단지 명칭 공모전’을 열고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는 피지컬AI 기술 실증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완주의 역할을 담은 명칭을 정립하는 동시에, 도민 참여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피지컬AI는 전북도가 수소·방산과 함께 3대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공모 주제는 ‘완주군 피지컬AI 실증단지’의 명칭으로, 완주를 대표하는 미래산업으로서 상징성과 지역성을 함께 갖춘 이름이된다. 도	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주민 선호도 조사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상징성·지역성·독창성·대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말 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 원, 장려상 7명에게 각 20만 원 등 모두 10명에게 군수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 내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정된 명칭은 피지컬AI 실증단지의 공식 명칭이자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는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남원사랑몰’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남원사랑몰’은 남원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남원시가 새롭게 만드는 온라인쇼핑몰로 2027년 1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우선적인 모집 대상은 남원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업체로, 사업자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택배 배송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10월 12일부터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우수 농특산물 업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과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쇼핑몰 개설 이후에는 기획전과 할인 행사, 온라인 홍보 및 택배비 등 다양한 판매 촉진 활동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남원사랑몰은 우리 지역에서 정성껏 생산한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밝혔다. 입점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산유통 담당 부서(063-620-62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	--



순창군,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11개 읍·면 연계 발굴·홍보 강화
정보 부족 신청 놓치는 주민 예방

순창군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군은 특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11개 읍·면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 이장회보와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의사를 확인한 뒤 신청·접수까지 연계해 복지서비스 이용에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주민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법정보호 한 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읍·면과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	---

남원시,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 타당성 논의

섬진강 통합관리체계 필요성 강조
교통망·관리시설 연계 강점 부각

남원시는 지난 23일 남원시 이음센터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 JBNU 지역발전연구원의 남원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역할과 통합유역관리 방향을 살펴보고, 남원 입지의 타당성과 유치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장남정 선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수질공학·상하수도공학 분야 연구한 박영기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인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와 광동희 전북대학교 교수, 영산강·섬진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낸 장태일 전북대학교 교수, 상수도관망에서 수질 위험과 관련된 연구	경력이 있는 김재희 전북대학교 교수 등 물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발제에서는 섬진강 유역의 관리 여건과 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기관의 기능과 입지 검토사항, 단계별 유치 대응 방향 등이 제시됐다. 특히 수질·수량·수생태계 관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만큼, 섬진강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토론에서는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남원이 오염원 관리와 재해 대응을 위한 현장 거점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원은 전라선 KTX남원역과 남원JCT에서 연결되는 광주대구고속도로·순천완주고속도로를 통해 유역 내 주요 지역과 수환경시설에 접근하기 유리한 점 또한 부각되었다. 또한 관내 섬진강 유역이 506.4㎢로 전체 유역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남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와 홍수 대응·수량	관리 기능을 연계·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수질 분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입지 강점으로 꼽혔다. 2020년 집중호우와 섬진강 제방 붕괴는 남원 시민들의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큰 상처를 남겼다. 당시 수백억 원의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 1,165명과 주택 536동 침수, 농경지 피해 1,240.63ha가 집계됐다. 남원시는 2021년부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남원 설치를 건의해 왔으며,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 논리를 보완하고 전북도와 유역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남원의 입지 타당성과 유치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섬진강유역환경청 남원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	---

완주군·전북환경청, 산단 악취·연료화시설 해법 모색

친환경연료화시설 추진 방안 논의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 구축 협의

완주군이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역소통협력관 간담회’를 열고,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와 완주군 자원순환과장, 환경위생과장 등이 참석해 주요 환경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친환경연료화시	설 설치사업 △완주산단 통합하가사업장 악취 민원 대응 협력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구축사업 △완주산단 불명오염원 기술진단 등 4개 분야다. 먼저 친환경연료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분안 협의, 재원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관계기관의 협조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완주산단 통합하가사업장의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반	복적인 민원 발생 시 합동점검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재장비함 구축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	---

순창 설랜드 전국 교원 인생설계 연수 ‘인기’

순창군의 힐링 공간 ‘설랜드’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 운영하는 전국 교원 대상 ‘미리 만나면 더 좋은 인생설계 직무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향후 10년 이내 퇴직을 앞둔 전국 교원들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가 신청이 접수 시작 불과 2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퇴직을 앞둔 교원들의 체계적인 인생설계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줬다.

이번 연수는 전문적인 인생설계 교육과 자연 속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건강과 치유에 특화된 설랜드의 쾌적한 연수 환경에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강의와

직무연수 학점 이수 혜택까지 더해져 교육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3박 4일간 진행된 연수는 배움과 휴식, 치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됐다. 서울대학교 김치현 교수의 ‘허리 노화의 이해와 예방·치료’, 조비룡 교수의 ‘활기 충전! 건강백세 전략’ 등 퇴직 이후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강천산 트레킹과 족욕 체험 등 순창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와 교육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원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강의를 듣고 자연 속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향교, 제28회 유림지도자 기로연 개최

순창향교는 지난 23일 향교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제28회 순창향교 유림지도자 기로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윤리를 계승·보존하고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사회단체장과 향교 유림,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순창향교 유림들이 대성전에서 분향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효행과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한 지역주민과 향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상장과 감사장이 전달됐다.

성균관장이 수여하는 효열부상은 순창읍에 거주하는 정계자 씨가, 효녀상은 동계면에 거주하는 김미임 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순창향교 전교가 수여하는 장수패는 김봉호 순창향교 유림에게 돌아갔다.

이날 순창군 문화관광과 장웅진 주무관은 순창향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향교 유림들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어 80세 이상 순창향교 유림지도자들을 위한 헌수례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향교 발전에 힘써 온 어르신들의 공적을 기리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농촌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컨설팅

남원시는 지난 23일 농촌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컨설팅은 남원시의 농촌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농촌치유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리산 홍삼을 활용한 코스 요리 만들기, 수세미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지역 농촌자원과 농업·농촌의 특색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둔다.

특히 치유농장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농촌치유관광 경영체의 홍보 동영상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잠재 고객의 관심과 실제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설팅 대상자의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역량을 강화해 방문객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최우수’

남원시는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 4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청소년 인구와 도시 유형 등을 고려해 전국 235여 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주요 평가항목은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 조성 △센터 사업 인프라 △센터 운영실적 △센터 운영성과 등이다.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센터 운영과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전반적인 운영성과

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담·보호·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해 온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오미선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노인일자리 소양교육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지회장 김영기)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년기 사회참여가 지니는 의미와 치매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다뤄, 일자리 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일상에서도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재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유히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은 “이번 교육이 어르신들이 노년기 사회참여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양봉협회

장학금 2백만원 기탁

무주군양봉협회가 지난 23일 (제)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무주에서 생산된 벌꿀의 판매 수익금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송재철 무주군양봉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생산한 벌꿀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장차 무주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위해 쓰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무주 벌꿀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무주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무주군양봉협회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0여 명의 무주군 양봉협회 회원들은 양봉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도 동참해 애환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이웃들을 위한 손길을 보듬며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어린이 독서문화 활성화 나서

전북 임실군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실군립도서관은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책놀이 선생님과 책임기 △자율봉사자와 함께 책임기 △성우 낭독체험 △동시 작가와와의 만남 등 △아로마테라피 문화프로그램 등 총 17회에 걸쳐 연인원 234명이 참여했다.

한독수 임실군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 생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서관 사업”이라며 “지역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GTWS 결승전 2026’

30여 개국 선수 3천여명 참가

‘GTWS(Golden Trail World Series) 결승전 2026’ 대회가 지난 24일과 25일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덕유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제적인 산악 스포츠 브랜드 살로몬(SALOMON)이 주관·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 세계 시리즈를 통과한 30여 개국 3천여 명의 엘리트 선수를 비롯해 관람객 등 3천5백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무주군은 원활한 대회 진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대회 전부터 무주소방서, 무주경찰서,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선수 이동 동선과 주요 위험 구간,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 절차, △현장의 묘지, △교통 및 질서 유지 등 분야별 대응에 주력했다.

대회 기간에는 무주군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주요 관광지와 천마·도라지 등 만년봉 농특산물을 함께 알렸다. 24일 밤에는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선수 등 행사 관계자들을 위한 ‘낙화놀이’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앞으로 세계적인 산악 스포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더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민선9기 첫 전북 시장군수協 개최

‘민선 9기 제1차 회의’ 열어

16개 지역 핵심 현안 논의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공식회의가 임실군에서 개최됐다.

이번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4개 시·군 간 상생 협력과 지역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2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민선 9기 제1차년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새로운 지자체 출범에 맞춰 도내 14개 시·군이 연대와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지역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협의회장인 황인홍 무주군수와 개최지 단체장인 한독수 임실군수를 비롯해 전북 도내 주요 시장·군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의의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공식회의가 지난 22일 임실군에서 개최됐다 <사진=임실군>

들의 중앙부처 및 도 차원의 회신 결과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안전 심의에서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총 16건의 지역 발전 핵심 과제들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전북도 복지 분야 자체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 합리적 조정 △지방자치단체 직속 기관 기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해 임실군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전국 아·통장 자치

행정 연수원 건립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요청 등이 집중 다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들을 정리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정기 회의를 활성화해 도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이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장애인 권익 증진 앞장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진행

장애인 차별 사례 공유 공직 사회 역할 되짚어

무주군은 지난 23일 공무원 대상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민의집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행정 서비스 전반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무주군청을 비롯한 6개 읍면 공무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황현철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다원 주간보호시설 센터장은 “실례와 실수가 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자율성·자립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장애인 인권 개념과 관련 법·제도 이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사례 분석 등을 공유했으며,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동등한 권리 보장 및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46회 전북 농아인체육대회 성료

농아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

제46회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체육대회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농아인체육대회는 농아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 증진과 성취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에서는 처음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무주군지회가 주관한 무주

대회에는 14개 시군 선수와 자원봉사자, 내빈 등 1천2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백여 명의 선수들은 23일 족구와 여자 디스크골프, 볼링, 남녀 배드민턴, 한궁, 숫자판 던지기 탁구 등 총 8개 종목의 사전 경기를 치렀으며, 24일에는 본경기를 통해 실력을 뽐냈다.

김민경 무주군수서터용역센터 수어통역사는 농아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권익 증진에 헌신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 수 표창을 받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진안군 찾는다

11월 6일 운영 28일까지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 생활 속 고충 현장에서 상담

진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함께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안군청 3층 강당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 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형 민원 상담 제도이다.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를 직접 찾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는 △세무·복지·농림·노동·환경·주택·건축·하천·교통 등과 관련된 모든 행정 분야의 고충민원과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생활법률·서민금융·지적 분야 등의 생활민원이다.

운영 당일 현장에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상담 신청을 하면 권익위 조사관이 민원 내용을 미리 검토해 당일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근 무주군, 장수군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평소 군민들께서 겪으셨던 불편과 고충을 권익위 전문 조사관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물, 3년 만에 매출 6배 경증

연매출 12억원 조기 달성

온라인 판로 확대 성과

장수군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이 이달 누계 매출 12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 규모에 도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장수물은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농가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품질 좋은 농특산물과 편리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매출이 약 6배 성장하고 회원 수 2만 5천 명을 확보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까지 두 달여를 남겨두고 지난해 연간 매출액인 12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그동안 장수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왔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농특산물 체험상품도 새롭게 선보이며 상품 선택

의 폭을 넓혔다.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상품과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지역 농가와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장수물의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물의 성장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상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농가와 업체의 참여를 넓혀 더 큰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종교의 벽 넘은 화합의 무대

진안군민 평화음악회 성황

진안군은 지난 23일 마이산 금당사 야외마당에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진안군민 평화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군민 2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음악회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로, 종교를 넘어 진정한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현장에는 대한불교조계종 금당사회주 벽산 원행 큰스님을 비롯해 원불교 진안지구장 오진경 교무, 천주교 전주교구 진안성당 송년홍 신

부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각 종교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된 본 공연에서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중창단 공연과 풍기타·색소폰 연주 등 종교별 대표 출연진의 무대를 비롯해, 진안전통춤 예술인 오한솔의 춤 공연, 인디밴드 ‘오월’과 하모니카 연주자 이성준의 협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종교와 계층을 넘어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진안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철거 예정 건물 소방 훈련에 내놔

기관 협력…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임실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내 철거 예정 건물을 활용해 임실소방서의 도시탐색 훈련을 지원한다.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을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임실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을 철거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실소방서와 협력해 훈련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하반기 관촌면

슬치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마을에서 진행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사면 관기마을에서 실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추진됐다. 실제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탐색 훈련은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실군은 사업 목적과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철거 예정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임실소방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관 간 상생하는 행정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지질명소 5개소 학술적 가치 규명

진안군이 지역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향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진안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지질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지질명소 지질학적 가치 발굴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마이산을 비롯한 진안군 지질명소 5개소의 지질학적 특성과 형성 역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진안군 일대 선캄브리아시대 화성암류의 형성 시기와

지구조적 의미, 진안분지 백악기 화산암류의 용기사와 동아시아 지구조 환경, 백악기 퇴적암류의 용기사와 퇴적 분지 발달상 등이다.

이를 통해 진안의 지질자원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지역 지질명소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진안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학술적 성과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관광·교육·체험 분야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7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준비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2026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보육교직원 60여 명 참여

장수군은 22일 장수군어린이집연합회가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 현장에서 힘쓰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신 재충전과 교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장수군 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내면

치유 특강 △레크리에이션 △초청 가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교직원들은 특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교직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육의 가치를 되새기며,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육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데 의미를 뒀다.

장수군어린이집연합회는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고석군 전 재경하서면향우회장 부안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전 재경하서면향우회장과 전 재경부안고등학교총동문회장을 역임한 고석군씨가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석군 씨는 2019년부터 일시기탁과 CMS 정기후원을 통해 부안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한 번의 기탁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후원과 지속적인 나눔으로 고향의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며 부안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재경하서면향우회장과 재경부안고등학교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고향과 동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온 고석군씨의 이번 기탁은 부안에서 성장하는 후배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뜻깊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읍 덕천면 지사협 함께 키운 들깨로 나눔 준비

정읍시 덕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대성)와 이장협의체(회장 황홍규)가 지난 22일 '희망의 나눔채소' 텃밭에서 들깨를 수확하며 경로당에 전달 나눔을 준비했다.

이번 사업은 면사무소 뒤 유흥 농지를 활용해 추진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협의체,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함께 참여해 들깨를 정성껏 가꾸며 나눔의 결실을 준비해 왔다.

이날 수확한 들깨는 지역 내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단체들이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 결실을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성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바쁜 일정보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황홍규 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봉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에스에스엔지니어링, 고창군에 장학금 1억 기탁

2023년에 이어 꾸준한 나눔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 22일 (주)에스에스엔지니어링(회장 김재중)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에스에스엔지니어링은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종합건설회사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도 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이번 기탁으로 누적 기탁금액이 2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중 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이사장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큰 정성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 22일 (주)에스에스엔지니어링(회장 김재중)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창군>



익산 (주)진산테크윈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장학금 기탁

익산에서 기술력을 다져온 유망 향토기업이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향토기업인 (주)진산테크윈이 지난 23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진로 자립을 돕기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탁됐으며, 위기 청소년 구조망인 익산시 1388청소년지원단과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된다.

기부에 나선 (주)진산테크윈은 지난 2011년 익산에 동지를 튼 전력·전기 시스템 전문 강소기업이다. 데이터센터용 배전반과 공장자동화 설비를 전문 생산해 왔으며, 최근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AI 자동차와 솔루션과 화재 예측 배전반 개발 등 첨단 미래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에서 일군 기업의 결실을 다시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울림을 더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창립 2주년 기념 환경정화 추진

현장 중심 경영 실천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창립 2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과 기념식을 개최하며 내실을 다졌다.

공단은 지난 23일 완주국민체육센터에서 기념식에 앞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은 체육센터 일대와 주요 시설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군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을 직

접 가꾸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천적 책무를 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희수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과 묵묵히 헌신해 준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공단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완주군민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는 신뢰받는 공기기업으로 성실히 갈아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산내면-함양 마천면, 영·호남 화합행사

남원시 산내면(면장 김한웅)과 경남 함양군 마천면(면장 김복수)은 지난 23일 마천면사무소에서 '2026 영·호남 화합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장과 마을 이장,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지역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산내면과 마천면은 지리산을 사이에 둔 이웃 지역으로, 30년간 매

년 양 지역을 오가며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마천면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오랜 인연을 되새기고 상호 협력과 교류의 뜻을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양 지역 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80만 원을 상호기부하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의 지를 다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진장축산농협, 4년째 무주에 고향사랑기부

무진장축산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송제근 조합장과 강동완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명이 함께해 무주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무주군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지역민에게 힘이 되는 무진장축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진장축협의 '고향사랑, 무주사랑' 동참은 지난 2023년 시작(340만 원)됐으며, 2024년 240만 원, 2025년에도 26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무진장축협은 기부뿐만 아니라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담레품 제공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전주 데시앙양정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기부

데시앙양정어린이집은 지난 23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12만 55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원아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어린이집 구성원들은 물건을 아껴 쓰고 다시 나누는 바자회를 통해 자원 재사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연결했다.

앞서 데시앙양정어린이집은 지난 2022년 생필품 기부와 2023년 저금통 기부 이어,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백만천사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

올해도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하며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과 이웃사랑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정혜민 기자

건조한 가을, 불씨 하나도 조심하세요

가을철 산불 예방

1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2

취사 금지구역에서 취사 금지

3

산에서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4

산불발견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一事一言〉



‘하루 체류’ 54.7%의 착시. 통계 넘어 ‘소비형 정주’로 체질 바뀌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등록인구 4.2배’ 수치의 착각, 실상은 11.7시간 단기 방문

호남지방데이터센터가 발표한 최근 통계 데이터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체류인구 정책의 서글픈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 내 10개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생활인구가 약 254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9만 명)의 4.2배에 달한다는 수치는 겉보기에 꽤 훌륭해 보인다. 외지인들이 전북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치의 껍데기를 한 자풀 벗겨내면 곧바로 참담한 한계와 직면하게 된다. 체류인구 전체 규모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 중 무려 54.7%가 단 ‘하루’만 머물다 떠나는 단기 방문자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평균 체류시간 11.7시간, 숙박객 중 1일 숙박 비중 61.1%. 이 정교한 수치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하다. 수십만 명의 외지인이 전북을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낮에 잠시 들러 식사 한 끼를 하거나 풍경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헤어 지기도 전에 타 광역시도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지역에 밤을 지새우며 돈을 쓸 공간도, 머무르고 싶은 유인 요소도 제공하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의 고착화다.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몇 배나 하는 화려한 통계 착시에 빠져 있는 동안, 정작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생활인구’ 개념은 단순히 스쳐 가는 방

문객 수만 늘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지역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소비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으며 경제 생태계에 피를 돌게 만드는 ‘실질적 정주 과급효과’가 핵심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11.7시간만 머물다 떠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수백만 명의 체류인구가 집계된다 한들 지자체 지방재정과 지역 상권에는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체류인구 정책이 근본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관계 축제·일회성 유치 탈피하고 야간 경제·장기 체류 인프라로

전북이 ‘54.7% 하루 체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짜 돈이 도는 ‘체류·소비형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적 대전환이 시급하다.

첫째, 일회성 관계 축제 위주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야간 경제 및 체류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단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모으고 끝나는 단발성 행사나 도로 정비 수준의 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밤에도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경관 콘텐츠, 고품격 숙박 시설, 그리고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야시장 및 밤거리 상권을 획기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낮에 온 방문객을 밤까지 주저앉히는 ‘1박 2일’ 이상의 체류 고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핀셋형 장기 체류 프로그램’의 본격화다.

통계에서 보듯 김제시는 재방문율(53.0%)과 평균 체류일수(4.3일)가 높고, 장수군은 평균 체류시간(12.6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처럼 각 시·군이 지닌 고유한 강점을 살려 ‘농촌 한 달 살기’, ‘워케이션(Workation) 거점 센터’, ‘은퇴자 체류형 휴양 단지’ 등 관계인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정주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셋째, 도내 주요 관광·문화 자원 간의 광역 교통·숙박 연계망 구축이다.

부안, 남원, 정읍 등 체류인구가 많은 거점 시·군과 인근 지역을 하나의 묶음 패키지로 연결하는 광역 순환 교통망과 할인 연계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 방문객이 한 지역에만 잠시 들렀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북 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며 연쇄 숙박과 소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계는 속일 수 없다. ‘하루 체류’ 54.7%라는 숫자는 행정의 자족감을 경고하는 서늘한 신호음이다.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도민과 소상공인이 진짜 바라는 것은 숫자의 화려함이 아닌,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도는 ‘실속 있는 체류’다. 전북도정은 이제 스쳐 가는 나그네를 잡고, 그들이 전북의 산과 바다와 마을에 오래도록 머물며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진짜 체류형 생태계’를 완성해 내야 한다.

ㅣ 독자투고 ㅣ

농번기 도로변 방치 농기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치워야 합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농촌 들녘은 수확의 기쁨과 함께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도로 위에는 결실을 거두기 위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운행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눈에 띈다. 바로 작업이 마친 후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변에 그대로 방치해 둔 농기계들이다.

바쁜 농사일로 인해 ‘잠시 세워두는 건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로변에 농

기계를 세워두고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무심한 행동이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안개가 자주 끼는 가을철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다. 어두운 도로변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농기계는 반사판이나 등화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나가는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가을철은 나들이객과 고령층의 이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도로 위 작은 위험 요소 하나도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농작업이 끝난 후에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반드시 자택이나 전용 보관소 등 안전한 장소로 농기계를 이동해야 한다.

한순간의 편의를 위해 도로 위에 남겨둔 농기계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김지혜

사 설

노을대교 건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기대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해상과 육상에서 기반조사가 진행되면서 오랜 세월 지역민들이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 서해안의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8.87km의 도로 건설사업이다. 교량이 완공되면 현재 약 70분이 소요되는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이 10분 안팎으로 단축된다.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고창과 부안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이는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노을대교는 수십 년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한때 2026년 착공과 2030년 개통이 거론됐으나 현재 착공 목표는 2028년 1월로 늦춰졌다. 사업비 증액 문제까지 겹치면서 향후 일정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더 이상 장밋빛 전망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남

은 행정절차를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이행하고, 사업비 확보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착공 일정이 거듭 늦춰진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노을대교가 완공되더라도 교량 하나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변산반도와 선운산, 고창갯벌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과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할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노을대교는 고창과 부안만의 교량이 아니다. 새만금과 전남 서해안을 연결하고 전북 서해안 발전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국가 기반시설이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 의지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지역민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차질 없는 실행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노을대교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수십 년의 숙원이 또다시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의시

무지개를 위하여 / 박재구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의 강은 찾을 수 있어요?
영혼도 숨을 쉬나요?
영혼의 날개를 본 적 있어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가슴에서
내 가슴에 이르는 저 기나긴
다리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색색의 꿈으로 빚어놓은
저 섬세한 바람의 술렁거림은 무엇인지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꿈꾼 적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가슴에 와 부서지는
저 그리운 빛들의 축제는 또
무어라고 부르지요?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씨꾸’, ‘낙타풀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1992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공정뉴스 4대4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제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도민의 제보가 지역 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민선 9기 전북, 미래산업 기반에 도민 삶 결실 쌓는다

청년은 고향에서 일하고, 도민은 정책의 주인 되는 전북
산업 육성부터 의료·금융·공공기관 이전까지 전방위 채비
성장의 성과를 숫자 아닌 도민 삶 바꾸는 결실로 증명

“.....”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도민이 주인인 도정을 향해 힘차게 내달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북 예산이 반영됐다. 피지컬AI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정,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수소·로봇·농생명바이오 3대 성장엔진 확정,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 등 굵직한 성과도 잇따랐다. 도청 문을 활짝 열고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열린 도정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는 이 토대 위에 도민께서 직접 손에 짚 수 있는 결실을 쌓아 올릴 차례”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

■ 체감성장·도민주권·열린 도정...도민이 중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민선 9기의 핵심 가치는 ‘체감성장’이다. 성장의 성과가 통계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실제로 느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의 자원과 인재, 기업의 역량으로 거둔 성과가 도민 소득으로 돌아가고, 그 소득이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유망 기업을 발굴해 성장 단계별로 키우는 지원을 시작했다.

정책 성과도 소득이 늘었는지, 청년이 지역에 머무는지, 도민이 살기 좋아졌다고 느끼는지로 따지기로 했다.

이원택 지사는 “큰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 기업이 함께 일감을 얻고, 청년은 고향에서 일하며, 동네 상권에 손님이 늘어나는 모습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성장의 방향을 정하는 주체는 도민이다.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살아 있는 전북이기에 ‘도민주권’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도민이 제안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방안 등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정 분야에서는 농어민이 현장 과제를 찾아내고 행정과 함께 실행하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열린 도정’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제 평일 낮에는 누구나 도청과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호 결재로 시작한 간부회의 생중계는 매달 시범 운영 중이며, 다음 달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열린 도지사실’에서는 교통안전, 문화유산, 지역 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넓혀 더 많은 도민을 만날 계획이다.

■ 현대차·피지컬AI·반도체...미래산업 지도 새로 그린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은

출발점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실제 공장

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지원 전담조직을 꾸려 정부와

정한 과제를 챙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일대의 전력·용수

공급 기반을 확인했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국가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현대차도 사업별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어 투자가 본궤도에 오르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학교·병원 등 정주 여건도 함께 준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협력업체가 뒤따라 들어오고, 도내 기업이 부품을 납품하며, 지역 청년이 그곳으로 출근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피지컬AI 연구개발 사업은 5년간 대규모로 투자되는 국가 프로젝트다.

연구개발센터와 실제 공장을 본뜬 실증 공간이 들어선다. AI가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을 전북에서 개발하고 현장에서 시험하게 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세우고, 전북대·현대차 협약을 바탕으로 계약학과와 기업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도내 기업에 필요한 로봇과 기술을 발굴해 제조현장 곳곳에 피지컬 AI가 스며들게 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은 세계적 수준

의 핵심 소재 기업들이 자리한 전북의 저력을 국가가 공인한 결과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정치권·대학·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익산·완주를 잇는 소재 생산 거점을 키우고 성능 시험 시설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춘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까지 내다보고 있다.

■ 수소·로봇·농생명바이오 ‘3대 엔진’에 재생에너지로 날개

정부의 ‘5곡3특’ 전략에서 수소, 로봇, 농생명 바이오가 전북의 3대 성장엔진으로 확정됐다. 모두 전북이 그동안 쌓아온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다.

새만금의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청정 수소는 공장 자동차 연료로 쓴다. 로봇은 현대차와 함께 만든다. 지역 농산물은 건강식품과 신약 원료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성장엔진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예산은 물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재 양성까지 지원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전북만의 육성계획을 구축해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농가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 복안이다.

재생에너지는 농생명, 제조업과 함께 전북 산업 전략의 든든한 기반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깨끗한 전기로 만든 제품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는 공장 입지를 고르는 핵심 기준이 됐다.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용지, 공업용수, 전력 기반을 두루 갖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방침이다.

해택은 마을로도 이어진다. 주민이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 마을’이 도내 곳곳에서 추진 중이다.

향후 ‘바람소득마을’까지 넓혀 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연금형 소득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중심지·국립의전원·공공기관 이전...삶

의 질 높인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단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을 모아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금융도시로 키운다는 목표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이 전북에 거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금융타운 건립도 협약을 맺으며 첫발을 뒀다.

금융기관이 모이면 청년은 고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지역 기업은 성장 자금을 가까이에서 조달할 수 있다. 도는 연내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 낸다는 각오다.

도민의 오랜 염원이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남원 설립도 최종 확정됐다. 졸업생은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며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게 된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진료를 특화해 동부권 거점병원 역할도 맡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발표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금융·농생명·첨단산업·문화체육 분야와 시너지를 낼 기관도 염선했다.

이미 지역에 자리 잡은 기관들과 손발을 맞추면 기관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전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와 교육, 일자리 지원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에 오는 투자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챙기겠다”며 “땀 흘려 일군 성과가 도민께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가장 앞에서 뛰겠다. 도민이 주인인 전북, 도민의 살림을 채우는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